

조선시대 적대적 對日인식에 관한 고찰

- 임진왜란~조선시대 말기를 중심으로 -

이 규 배*

1. 서 론
2. 17세기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3. 18세기 조선시대 대일 적대감의 실태
4. 19세기 이후 조선시대의 대일 적대감
5. 결 론

1. 서 론

조선시대의 일본인식(혹은 일본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¹⁾ 그러나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국인식 관련 연구 축적에 비해 학술적 논급이 가장 미미한 영역이 조선시대의 일본인식에 관한 것이

* 제주국제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1)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1989. 琴秉洞, 『朝鮮人の日本觀—歴史認識の共有は可能か』, 總和社, 2002.

다.²⁾ 이러한 연구현실을 감안했을 때,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특히 그 중에서도 적대적 대일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더욱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당연한 귀결이다.

최근 한일역사 공동연구 성과물에서 “1965년 한·일수교가 이루어진 후 현재 배일이나 반일의 감정을 임진왜란에 결부시켜 인식하는 학자와 국민은 거의 없다. 이는 日本帝國主義의 식민지배에 대한 감정과는 다른 것이다.”³⁾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연구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것이며, 임진왜란에 의해 조선사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불가결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가 있다.⁴⁾

본고는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도 공백으로 남아있는 임란 이후 조선시대 적대적 대일인식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임란이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서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대일 ‘적개심’이나 ‘증오심’으로 표현되는 적대감에 대해서는 당연한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천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⁵⁾

본고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임란 이후 조선사회의 일본인식, 특히 그 중에서도 적대적 대일인식이 어떠한 형태로 실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검토 시기는 임란 직후인 1600년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를, 주요 검토 대상은 임란 체험자를 포함하여 각 시대에 일본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주요 인물들의 일본인식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1989, 8쪽.

3) 정구복,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壬辰倭亂에 對한 韓·日 兩國의 歷史認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183쪽.

4) 六反田豊 他,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55쪽.

5) ‘일본=不俱戴天의 원수’로서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萬世怨’, ‘九世復讐說’이 일반화되었고, 이러한 대일감정은 한국민들에게 일종의 유전자처럼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관의 원형이 되었다는 지적은 주목을 요한다. 하우봉, 『조선 후기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 『韓國思想史學』 第27輯, 한국사상사학회, 2006, 55쪽.

전체적으로는 조선시대 적대적 대일인식의 실태에 대해 통시적인 검토분석을 목적으로 설정하지만, 연구의 초점은 임란 이후 '일본=원수'로 전환된 대일인식의 실태와 그 상관성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17세기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조선사회의 적대적 대일인식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고 발현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동학의 교조 최제우의 「안심가」(安心歌)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가」는 천도교 포교가사집인 『용담유사』(龍潭遺事)안에 실린 9편의 가사 가운데 하나로서 1860년에 작사된 것이다. 이 「안심가」는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개 같은 왜적 놈을 神으로부터의 造化로 하룻밤 사이에 소멸시켜, 전지무궁(全地無窮), 대보단(大報壇)에 맹세하고 汗의 원수를 갚아 보이리라. …… 前歲 壬辰 몇 년이었던가. … 개와 같은 왜적들이 그대들의 神明을 되돌아보아라. 그대들이 물에 내려와서 무슨 은덕이 있었던가. ……⁶⁾

여기서도 보듯이 「안심가」는 '前歲 壬辰 몇 년이었던가'라며 260년 전의 임진왜란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담은 감정으로 '개 같은 왜적 놈을 神으로부터의 造化로 하룻밤 사이에 소멸'시키고 싶다는 격한 적대감을 담고 있다. 「안심가」가 천도교의 대중포교를 위한 가사라는

6) 최제우, 「癸未版 龍潭遺事」, 『동학농민혁명 자료총서』, <http://db.history.go.kr>. 동학에 등장하는 적대적 대일감정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람.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337~342쪽. 金信在, 「동학사상에서의 대외인식과 그 성격」, 『東學研究』 創刊號, 한국동학학회, 1997, 185~188쪽. 姜大德, 「開港前後 華西學派의 對外認識-1860~1880년대의 尊攘衛斥論과 斥攘斥倭論 分析에 의한 접근-」, 『韓日關係史研究』 5, 한일관계사학회, 1996, 132쪽. 池明觀, 「壬辰倭亂과 近代朝鮮의 民族主義」, 『기독교사상』 통권 제254호, 대한기독교서회, 97~116쪽.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가사는 당시의 대중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임란으로부터 260년이 지난 시점에서조차 적대적인 대일감정이 여전히 조선사회의 저변에서 연면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 노래가 작사된 1860년의 일본은 조선사회에서 특별하게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전무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적대적인 '왜적 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⁷⁾ 이러한 적대적인 일본인식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종결 후인 1600년대부터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었던 임란의 기억과 대일 '원수'론의 상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선조(宣祖)대에 영의정으로서 원균을 천거하는 등 임란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마다 유성룡(柳成龍)과 충돌을 빗기도 했던 이산해(李山海)는 전란 후인 1598년에 시폐(時弊)를 진단하는 차자(箴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먼저 이산해는 “적이 물러간 것을 기쁘게 여기지 마시고 원수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발”할 것을 강조하면서 “한창 설치고 있는 북쪽의 적이 아무래도 이미 물러간 왜구보다는 못할 듯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구의 흉봉(凶鋒)은 천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이라는 경계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십 개의 성을 쌓는 것보다 주사(舟師)를 예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것이 “선왕의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치욕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진언하고 있다.⁸⁾ 임란을 교훈삼아 『징비록』(懲毖錄)을 남긴 온건파 南人에 속한 유성룡이나 강경파인 北人에 속한 이산해는 정치적 입장은 달리 하고 있었지만, 임란 기억에 따른 격렬한 대일감정에는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7) 「안심가」가 작사됐을 당시 일본에서는 1854년과 1858년 체결된 서구열강과의 화친조약과 통상조약에 반발한 존왕도막파(尊王倒幕派)의 존왕양이운동의 막이 올라감으로써 급박한 정치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일본이 직면한 핵심적인 정치현안은 열강을 배척하는 양이 운동이었고, 따라서 인근국가 문제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더욱이 1860년이라면 일본의 본격적인 한반도 침탈 전조인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 16년 전이다. 물론 이 시기 일본에서는 한반도 침략론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양국간 충돌은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8) 李山海, 『鵝溪遺稿』 2, 민족문화추진회, 1998, 45~54쪽.

이러한 대일인식은 풍신수길(豊臣秀吉)의 몰락 이후 새로운 도쿠가와(德川)막부와 강화 논의가 부상된 뒤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 첫 번째 사절인 1607년 여우길(呂祐吉)·경섬(慶暹)·정호관(丁好寬) 등이 회답 겸 쇄환(回答兼刷還)을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될 때, 당시 참판 윤안성(尹安性)은 이들을 전송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쓰고 있다.

회답사라 이름 하여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오늘의 이 화친 의의를 모르겠네.
한강에 머리 돌려 강가를 바라보라. 두 능의 송백 가지도 안 돋았네.⁹⁾

조정 차원에서 강화가 결정되기는 했지만, 대일 화친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저변에 깔려있으며, 임란 당시 자행된 두 능(선릉과 정릉) 도굴에 대한 원한과 기억도 시 속에 녹아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시는 당시 널리 알려졌고 식자들의 절찬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⁰⁾

또한 문신으로서 문장이 뛰어나 조선 중기의 사대가(四大家)로 꼽혔던 장유(張維)는 이상고(李尙古)가 1617년 조선통신사 종사관으로 일본에 가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먼저 장유는 일본에 대해 “교활한 오랑캐로 말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를 치니 얼굴은 사람 모습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고나 할 것이다. …… 혹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청을 요구해 오거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禮를 강요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교활하게 무도한 짓을 자행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대는 장차 어떻게 이를 대처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전하면서 “이번의 사행에 있어 끝내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겠는가.”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이상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나에게는 실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두려워 떨리는 점이 있다. 임진년의 변고야

9) 미상, 「逸史記聞」, 『大東野乘』 14, 민족문화추진회, 1971, 586쪽.

10) 이 시는 임란으로부터 170년이 경과한 1771년에 제주사람 장한철(張漢喆)이 남긴 『표해록』에서도 인용되고 있을 정도였다. 장한철 지음·정병욱 옮김, 『표해록』, 범우사, 1979, 63쪽.

말로 만세토록 잇을 수 없는 사건이다. …… 의리에 입각해서 단안을 내린다면 일본의 산천과 초목치고 우리의 원수 아닌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이것이 비록 그들을 달래고 무마하기 위한 계략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필부의 심정으로서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¹¹⁾

여기서도 보듯이 이상고는 일본측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임란을 ‘만세토록 잇을 수 없는 사건’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일본의 산천과 초목치고 우리의 원수 아닌 것이 없다’고 피력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통신사로서의 사행길은 ‘교린회유’의 한 방편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임란 직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란을 체험한 당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임란의 기억과 대일 ‘원수’감정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란을 체험했던 세대로서 대일 강화 이후 제1차(1607년)~제4차(1636년) 조선통신사들의 사행일기에 한결같이 일본에 대한 ‘원수’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²⁾ 특히 조선 중기 인조 때의 문신 이식(李植)이 제4차 통신사 부사(副使) 김세렴(金世濂)을 전송하며 남긴 다음 글은 당시 대일 적대감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¹³⁾

이식은 “일본이 東國의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은 대개 아조(我朝) 임진년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고 과거사를 상기시키면서, 풍신수길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해독을 끼쳤던 자들이 모조리 몸이 사방으로 찢겨지고 불에 태워지는 등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아, 이 어찌 천도(天道)가 아니라 하겠는가.”며 임란으로부터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여전히 분노를

11) 張維, 「序. 送李從事尙古奉使日本序」, 『谿谷先生集』 제5권, <http://www.minchu.or.kr>.

12) 이규배, 「반일감정의 始原에 관한 試論의 고찰-임진왜란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第2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2007.10, 132~135쪽.

13) 李植, 「送金學士世濂使日本序」, 『澤堂集』 Ⅱ, 민족문화추진회, 1996, 180~181쪽.

표하고 있다. 그리고 강화요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악을 끼친 자들만을 원수로 삼을 뿐 그 나라까지 원수로 삼지는 않으려 하여, 옛날의 일은 접어둔 채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는 그들의 요청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씌으로써 강화수용의 배경에 대해 논급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의 일은 접어둔’ 강화요청 수용이 임란의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은 회유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을 뿐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려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투를 좋아하는 것이나 병기(兵氣)가 성한 것으로 말하면 옛날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없었고, 따라서 장차 불행하게도 못된 인물이 나와 다시 살기(殺機)를 발동하더라도 하면 이웃 나라가 병화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강화요청의 수용과 통신사의 교환은 ‘회유’를 위한 외면적 평화일 뿐, 그 이면에는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일 감정은 임란 3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보편적 인식이었던 셈이다.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이러한 대일인식은 양란 체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후대에 가셔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란 후에 출생한 신경(申晷, 1613~1653)은 양란으로부터 5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임란 전말을 기록한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를 저술하고 있다. 신경은 철저한 화이론(華夷論)적 입장에서 일본을 이적(夷狄)시하였으며, 대일교섭이나 양국관계에 있어서도 명분론적 입장에서 강경한 정책을 지지하였고 임란 자체를 나라가 더럽혀진 큰 치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¹⁴⁾ 실제로도 신경은 『재조번방지』 안에서 일본과 화친을 맺고 통신사를 보내는 일에 대해 “동쪽으로 백 대가 되도록 잇기 어려운 원수와 화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 책을

14) 신경의 일본관과 『재조번방지』에 대해서는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1989, 32~36쪽.

15) 申晷, 「再造藩邦志」(六), 『大東野乘』 IX, 민족문화추진회, 1971, 560쪽.

저술한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서도 “아아! 임진년의 화란이 참혹하였도다. 중국 군사가 아니었으면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고, 나라가 없어졌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같이 번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필부필부라도 마땅히 여러 번 익히 읽어서 그 사실을 자세하게 알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운데서 얻은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¹⁶⁾ 전체적으로 신경은 ‘재조지은(再造之恩)’¹⁷⁾이라는 사대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임란 기억의 사회적 전파와 ‘원수’감정에 대한 환기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보듯이 일본은 ‘원수’로 각인되고 있었고 이러한 적대감은 임란의 기억과 연동되면서 일본인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160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이러한 일본인식의 구도는 변함이 없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성리학자였던 윤증(尹拯, 1629-1714)은 1677년 이순신 시에 차운(次韻)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제갈 승상(諸葛丞相)은 시호가 忠武인데 장군의 훈업(勳業)도 마땅히 큰 명성을 그와 똑같이 받아야 한다. 국가가 남쪽과 북쪽에서 적병의 침입을 당하여 그 원수와 치욕을 아직 씻어 내지 못하였으니, 장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월이 오래 지나더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¹⁸⁾

윤증은 제갈공명과 이순신의 시호가 똑같은 충무라는 사실에 빗대면서 이순신에게도 제갈공명과 마찬가지로 그 ‘훈업’에 상응하는 ‘큰 명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설욕되지 않은 임란의 ‘원수와 치욕’으로 인해 이순신에 대한 추도의 염은 영원할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¹⁹⁾

16) 申晙, 「再造藩邦志」(六), 『大東野乘』 IX, 민족문화추진회, 1971, 562쪽.

17)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조선을 다시 세워주었다는 ‘재조지은’ 인식도 임란의 기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韓明基, 「再造之恩」과 조선 후기 정치사-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大同文化研究』 第59輯,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191~225쪽.

18) 尹拯, 「次李忠武舜臣韻」, 『明齋遺稿』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255쪽.

19) 윤증은 임진왜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명나라 신종(神宗)의 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한편 이러한 대일인식은 민간의 표류기록에서도 확인이 된다. 1698년에 발생했던 제주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규슈(九州) 사츠마(薩摩)로 인도된 난과 일행은 그곳에서 임란 때 피로된 조선인 출신 통역관을 만나게 된다. 이들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는 통역관은 난과 일행에 대한 일본 관리들의 철저한 소지품 점검과 기록을 보면서 “왜놈들이 잔달기가 이렇습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개 그 땅에 살며 그 관장을 받들면서도 삼세(三世)의 분노가 여태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²⁰⁾ 이는 임란으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삼세의 분노’라는 임란 피로인들의 대일감정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3. 18세기 조선시대 대일 적대감의 실태

1600년대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적대적 대일인식은 임란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었다. 특히 이런 사실은 1600년대 중반 이후부터 1700년대 초반 朝·日 양국간에 합의된 약조(約條)와 금조(禁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일례로 임란 전인 1443년과 1512년에 맺어진 약조는 대마도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세전선(歲遣船)의 규모나 수도서인(受圖書人)·수직인(受職人)에 대한 규모 등이 그것이다.²¹⁾ 그러나 임란 이후인 1653년(효종 4)에 정해진 약조에는 “비밀리에 왜인의 빛을 쓴 자는 그 빛의 많고 적은 것을 막론하고 극률(極律)로 다스린다.”거나 “왜인과 서로 만났을 때 물건을 매매하는 일 외에 함부로 우리나라 사정을 말하는

숙종의 문의(1704년 2월)에 대해서도 “신종황제의 망극한 은혜는 실로 우리 동방에서 만세도록 잊을 수 없습니다.”고 화답함으로써 임란이 망각할 수 없는 기억이었음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尹拯, 『神宗皇帝入廟收議回啓』(甲申二月), 『明齋遺稿』 2, 민족문화추진회, 2007, 231쪽.

20) 제주인 강두추·고수경의 일본 육구도 표류기 참조. 정운경 지음·정민 옮김, 『탐라문헌론』, 휴머니스트, 2008, 83~84쪽.

21) 金健瑞, 『約條』,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126~127쪽.

자는 발각 되는대로 치계(馳啓)하여 기밀을 누설한 죄로 다스린다.”, “(왜관에) 평상시 출입하면서 터무니없이 …… 나라 사정을 누설한 자는 계문(啓聞)하여 처벌한다.”²²⁾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내통이나 기밀누설을 포함한 안보상의 위험성 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임란 전에는 없던 규정으로서 임란에 기인한 대일 경계심의 제도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12년(숙종 38)에 정해진 서적밀매 금조도 임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이 금조에 따르면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통신사가 우리나라 서적이 왜국으로 많이 들어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 『징비록』도 또한 들어갔다고 하니 이런 책을 어찌 왜인이 보게 한단 말입니까. …… 지금부터는 법으로 정해서 사승(史乘)과 문집은 일체 엄금하되 이를 어기고 파는 자는 잠상(潛商)의 법률로 다스려야 합니다.”고 상계하고 있다.²³⁾ 이에 대해 숙종도 “중국 서책을 제외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문적은 모두 엄하게 금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이순신을 천거하는 등 임란 시 대활약을 펼쳤던 유성룡의 『징비록』 유출문제가 상징하듯이, 서적밀매 금지규정은 임란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당시의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²⁴⁾

22) 金健瑞, 「約條」,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129~130쪽.

23) 金健瑞, 「禁條」,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139~140쪽. 서종태의 상계에 대해 숙종은 “국승(國乘)에 관계된 책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하문하고 있다.

24) 서적밀매와 관련된 기사는 이보다 앞선 1682년 7차 통신사 역관 홍우재와 1711년 8차 통신사 부사 임수간의 기록에도 보인다. 洪禹載, 「東槎錄」, 『해행총제』 VI, 민족문화추진회, 1975, 154~155쪽; 任守幹, 「東槎日記」, 『海行摠載』 IX, 민족문화추진회, 1977, 285쪽.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1719년 9차 통신사 세술관 신유환은 “가장 통탄스런 것은 김학봉의 『海槎錄』, 유성룡의 『懲忿錄』, 강항의 『看羊錄』 등과 같은 책에는 양국의 기밀스런 사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데도 지금 그 대부분이 오사카에서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적을 탐색해놓고 이를 적에게 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가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고 관역(館譯)의 사적인 거래가 이와 같으니 한심한 일이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申維翰, 『海游錄』, 『海行摠載』 I, 민족문화추진회, 1974, 559~560쪽. 한편 7차 통신사 正使 윤지완(尹趾完)은 사신 관사가 풍신수길의 願堂인 大佛寺로 정해지자, “수길은 우리의 百代의 원수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의 관사를 원수놈 집에다 정해 주느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李肯翊, 「邊圉典故. 通信使」, 『練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1967, 443쪽.

양국간 빈번한 교류는 조선에 관한 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에 관한 정보도 무단하게 조선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익(李瀼)은 이를 토대로 임란 이후 일본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졌던 최초의 지식인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⁵⁾ 그런 의미에서 1700년대 중반의 일본인식은 그의 대표적 저서 『성호사설』(星湖僊說)(1740년경)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익은 주변정세와 조선의 군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군사란 백 년 동안 쓰지 않아도 좋지만 하루도 방비를 잊을 수 없으니, 군사란 내침하는 적을 방비하는 것이다. 적은 반드시 계획을 치밀히 하여 내침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당황하여 대응하게 된다. …… 진실로 천백년까지라도 군사를 쓰지 않게 된다면 어찌 크게 원하는 바 아니리오만, 다만 인적(鄰敵)이 우리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 걱정이다. …… 나는 듣건대 귀중한 보물을 지닌 자는 밤에 다니지 않고 큰일을 맡은 자는 적을 가벼이 보지 않는다 하니, 이 말은 곧 겁 없이 위대한 데를 다니지 말며 안일에 빠져 전쟁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²⁶⁾

이익이 조선의 ‘병비’를 거론하게 된 것은 ‘우리 마음과 같지 않은’ ‘인적’ 일본의 치밀한 내침 계획과 장구한 계획이 없는 조선의 ‘안일’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익이 水軍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논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폭원(幅員)은 넓지 않으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어 둘레가 거의 5천 리가 된 즉 해방(海防)이 가장 걱정거리이니, 고려 말엽으로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일을 보더라도 알 수 있거늘 이제 일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방비가 허술하다. …… 임진년의 큰 난리는 오히려 전쟁하던 끝에 있었지만, 이제 태평세월이 오래되매 수군을 통솔하는 자들이 군사의 고혈을 짜내어 상부에

25) 하우봉, 「星湖 李瀼의 日本認識」, 『全北史學』 第8輯, 전북대학교 사학회, 1984, 207쪽.

26) 李瀼, 「人事門. 兵備」, 『星湖僊說』 제7권, <http://www.minchu.or.kr>.

바치며 자신의 사복을 채울 뿐이다.²⁷⁾

여기서도 보듯이 이익은 조선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해방'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임란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치밀한 내침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를 '인적=일본'이 상정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익이 “몽·한병(蒙漢兵, 일본침공 당시의 여몽연합군-필자주)이 비록 강성했으나 수전에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불리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섬과 연해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물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진실로 모집하는 데 좋은 술책만 쓴다면 수군을 즉시 충당시킬 수 있을 것”²⁸⁾이라며 수군 강화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했던 것도 임란의 기억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은 이익이 이순신에 대해 주목하면서 “임진의 일로 말한다 하더라도 충무공은 큰 공을 세웠어도 형을 받고 귀양 가게 되었다. 진실로 유성룡 같은 이가 맹세코 발탁하지 않았더라면 개천 속에서 굶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 임진년 때 국운을 존속시킨 것은 모두 충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으니, 마땅히 종묘의 신실(神室)에 종향(從享)시켜 후인을 권장해야 할 것”²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의 일본통이라는 이익에게도 임란에서 기인되는 경계심과 적대감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이익은 임란의 원수를 갚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론을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이익은 왜란을 진압한 명나라 은혜를 논하면서 쓴 「만력은」(萬曆恩)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임진왜란 때 두 능이 변을 당한 일은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이고, 만력(萬曆)

27) 李瀾, 「人事門. 水軍」, 『星湖僿說』 VI, 민족문화추진회, 1977, 128쪽.

28) 李瀾, 「人事門. 水軍」, 『星湖僿說』 VI, 민족문화추진회, 1977, 129쪽.

29) 李瀾, 「經史門. 忌功」, 『星湖僿說』 제23권, <http://www.minchu.or.kr>. 이익은 무성왕묘(武成王廟) 사당 건립을 주장하는 글에서도 이순신 배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李瀾, 「人事門. 武成王廟」, 『星湖僿說』 제8권, <http://www.minchu.or.kr>. 이익은 명나라 장수 양호(楊鏞)를 기리는 글에서도 “임진 중흥의 공은 오직 이 충무공 한 분일 따름”이라고 쓰고 있다. 李瀾, 「經史門. 楊鏞」, 『星湖僿說』 제25권, <http://www.minchu.or.kr>.

연간에 군사를 보내 구원해 준 은혜는 만세까지 잊기 어려운 덕이지만, 원수는 이미 흔적이 없고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 저 왜놈을 복수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할 말이 있다. 원흉의 머리를 이미 베었고 남은 족속들은 허물을 고쳤으니, 오랜 세월이 흐르면 무기를 풀고 백성을 쉬게 할 수도 있다.³⁰⁾

여기서도 보듯이 이익은 임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라고 칭하면서도 ‘원수는 이미 흔적이 없고’ ‘남은 족속들은 허물을 고쳤으니’ 후손에 대한 보복의 불가함을 설파하고 있다. 이익의 관심은 보복보다는 오히려 “친목을 증히 여겨 감정을 풀고 정성”을 다 하는 교린에 있었다.³¹⁾ 그러나 이러한 교린중시와 보복불가론이 임란의 망각을 권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교린중시와 보복불가론은 형세론적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익은 「만력은」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는 것이다.

강약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거센 적과 부닥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멸망하기에까지 이른다면, 이것이 어찌 이치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왜와와 화친한 힘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는 못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일본에 대한 가장 객관적 이해에 도달했던 이익에게도 교린중시와 보복불가론은 현실문제를 감안한 형세론적 판단 때문이었으며, 대일 인식의 기저에 적대적인 경계심이 흐르고 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³²⁾

30) 李瀾, 「人事門. 萬曆恩」, 『星湖僿說』 제12권, <http://www.minchu.or.kr>.

31) 임란 후 150여 년이 지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대일 적대심과 주자학적 화이 의식이 고수되고 있었지만, 이익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으로 일본의 실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임란의 구원을 갚는 것보다 현실적 입장에서 일본과 교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우봉, 「星湖 李瀾의 日本認識」, 『全北史學』 第8輯, 전북대학교 사학회, 1984, 207~208쪽.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 인식』, 혜안, 2006, 51~52쪽.

32) 학문적으로 이익에게 사사를 받았던 안정복(1712-1791)의 일본연구 동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익의 일본인식과 더불어 1700년대 후반의 기록으로 흥미를 끄는 자료는 제주사람 장한철이 남긴 『표해록』³³⁾이다. 제주는 임란과 무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전국의 여타 지역과는 달리 유일하게 임란의 참상이 기록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런 제주 출신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표해록』에서 '일본은 원수이니 하늘 아래 같이 할 수 없다'는 격렬한 적대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적대감은 장한철이 임란의 기억을 반추하며 "왜놈이여, 왜놈이여, 마땅히 참할 만하구나. 사람들이 천 번이라도 그 칼로써 마땅히 찌를 만하구나. …… 왜놈이란 종자는 사람에게 터럭만한 이로운도 주지 못하고, 그 해독으로 말하면 … 하늘이 어찌 이런 종자를 만들어내었을까."라고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³⁴⁾

한편 장한철은 안남(安南)의 명나라 유민출신 상인의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임란 당시 명나라의 '황은과 재조지은'을 거론함과 동시에 양국

정치적·군사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233쪽. 이는 안정복이 조선 경계에 대해 논하면서 "바닷길로 말하자면 왜와 서로 접하여 있는데 동남의 연해가 가장 가깝다. 저들의 대마도·일기도·옥람도(玉藍島)·平戶島 등의 섬 및 西海 九國의 땅은 모두 바람에 뜻을 달면 하루나 2, 3일의 노정이요, 隱岐·伯耆 등 여러 州는 강원도의 동해와 역시 3, 4일의 노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약 그들과 화친이 깨진다면 3면의 연해가 모두 그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한 것이나, 이익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나라가 비록 海外偏邦이라 하지만 실은 사면으로 외적을 받는 땅입니다. …… 왜인은 노략질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고려 말에 동·북도가 항상 그 피해를 받았습시다. 지금 들으니, 동해의 수심이 점점 낮아지므로 고기잡이 왜인들이 대부분 우리 동해로 나와 울릉도 같은 데는 이르지 않을 때가 없다 합니다. 근년에 대마도 왜인이 蓼시장을 열기를 청할 때에도 '당신네가 만일 허락해주지 않으면 당신네 동해를 건너가 강원도와 북도에서 삼을 캐겠다' 하 였다니, 이 일 또한 염려됩니다."고 쓴 데서도 엿볼 수 있다. 安鼎福, 「東國地界說 戊寅年」, 『順菴先生文集』 제19권, <http://www.minchu.or.kr> ; 安鼎福, 「東史問答 戊寅年(1758)」, 『順菴先生文集』 제10권, <http://www.minchu.or.kr>.

33) 『표해록』은 1770년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제주에서 배를 탔다가 폭풍으로 표류해 1771년에 귀국할 때까지의 경험을 한문으로 엮은 중편 기록이다.

34) 장한철 지음·정병욱 옮김, 『표해록』, 범우사, 1979, 62~63쪽. 한편 임란 전말을 그린 대표적인 기록물 가운데 하나인 『임진록』에 등장하는 譯官 홍순원에 얽힌 민담은 임란의 피해와 무관한 제주지역에서조차 설화로 내려오고 있다. 백록어문학회, 「北濟郡 涯月邑 今德里 現地學術調査報告(1995.8.3~8.6)」, 『白鹿語文』第12輯,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6.1, 330~332쪽.

관계의 친밀성에 호소하고 있다.³⁵⁾ 이는 임란의 기억과 연동되는 대일 적대감이 임란 무풍지대였던 제주지역에까지 유포되어 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일 적대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실상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이처럼 임란으로부터 150년을 전후하는 1700년대 중후반 시점에서도 임란 기억과 연동되는 대일 적대감은 여전히 온존되고 있었다. 1700년대 말 정조(正祖, 1752~1800)의 이순신 현양사업은 이러한 대일 인식의 전면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이순신에 대한 현양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때는 정조대에 들어서이다. 1778년(정조 2)에는 『이순신사적』(李舜臣事蹟)이 승정원(承政院)에서 편찬·등사되어 정조에게 제공된 바가 있었고, 1795년(정조 19)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탁월한 공적과 충절'을 평가하여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친히 지을 정도였다.³⁶⁾ 정조의 명에 의한 『충무공이순신전서』(忠武公李舜臣全書)의 발간은 이순신 현양사업의 완결판이기도 하다.³⁷⁾

이처럼 정조가 이순신에 대한 주목할 만한 현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던 것은 “이순신의 경우는 참으로 천고 이래의 충신이요 명장이다. …… 임진왜란 때 왜구를 토벌한 공로는 백세토록 영원히 그 덕택을 입고 있고, 변방의 방비를 기획하는 데 방략(方略)이 두루 갖추어져 있으며, 그의 명성과 의열은 아직도 사람에게 능연히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순신 인식과 평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³⁸⁾

이러한 이순신 인식과 평가는 신도비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조는 이순신의 전공에 대해 서술한 다음 “8년 동안을 싸웠다 하면 반드시 이기고, 지키던 곳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서 나라 형세가 그에 의하여 좌우되고, 적의 예봉이 그에 의하여 꺾이어 전 국토에 굴을 파 놓고 출몰하던 교활한 오랑캐들이 끝내 저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35) 장한철 지음·정병욱 옮김, 『표해록』, 범우사, 1979, 67~68쪽.

36) 『正祖實錄』 42卷, 19年 5月 11日(辛酉).

37) 『正祖實錄』 43卷, 19年 9月 14日(壬戌).

38) 正祖, 「日得錄十三, 人物 三」, 『弘齋全書』 제173권, <http://www.minchu.or.kr>.

열조(烈祖)로 하여금 중흥의 공을 이룰 수 있게 뒷받침한 것은 오직 충무공 한 사람의 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충무공에게 특별히 명(銘)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할 것인가.”라며 이순신의 공열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다음 시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이순신에 대한 현양은 임란의 기억과 여전한 대일 경계심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큰 난리가 일어나면 인걸이 때에 맞추어 일어나니, 이성은 당나라 사직을 안 정시켰고 제갈량은 한의 왕실을 회복했네. 천백 년이 지난 뒤에 이 둘의 공을 하나로 합한 사람이 있어 섬 오랑캐의 흉한 기세를 진정시켰으니, 때는 바야흐로 임진년이었네. …… 술은 민수(澗水)와 같고 안주는 큰 언덕과 같으니,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게 먹어서, 큰 강에 영험을 떨쳐 저 오랑캐의 자취를 말끔하게 씻으소서.⁴⁰⁾

여기서도 보듯이 임란 기억과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순신에 대한 추념, 그리고 ‘오랑캐의 자취를 말끔하게 씻으소서’라는 적대적 대일 경계심은 임란 2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더욱 선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었다. 정조의 이런 각별한 임란 기억은 임란 20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점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임란 이후 지속되어 왔던 기억의 계승이기도 하다.

이처럼 1700년대 기록에서 발견되는 대일 경계심과 적대심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실학자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나타난다. 정조의 깊은 신뢰를 받았던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李德懋)의 경우는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덕무는 양국의 평화가 200년 가까이 지속되던 1793년 「비왜론」(備倭論)에서 대일 경계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교활하고도 사나운 우리나라의 강한 이웃인데, 하이(蝦夷)를 능멸하고 홍모(紅毛)를 농락하여 오직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했으니 호랑이에 다 날개를 붙인 셈이다. 천하의 사변은 무궁하고 환란은 경홀한 데에서 생기는

39) 正祖, 「碑. 忠武公 李舜臣 神道碑銘 并序」, 『弘齋全書』 제15권, <http://www.minchu.or.kr>.

40) 正祖, 「祭文四. 鄧總兵子龍 追配康津縣陝都督祠 致祭文」, 『弘齋全書』 제22권, <http://www.minchu.or.kr>.

것이니 평상시의 무사할 때에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며 ……⁴¹⁾

이러한 일본인식의 이면에는 이덕무가 고려시대 이래의 왜구 침략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덕무가 「비왜론」에서 “동해에는 옛날부터 변방의 걱정이 없었다. …… 문종(文宗) 이후로부터는 왜구가 비로소 일어났지만 피해는 영남의 해안에 그쳤고, 충선왕 때에는 왜의 침범이 호남의 군산도·추자도 등까지 이르렀고, 충정왕 때에는 왜의 침범이 경기의 삼목도(三木島)·자연도(紫燕島) 등까지 이르렀으며, 공민왕 때에는 서해(西海, 황해도의 鳳山)와 관서(關西, 평안도의 선천)까지 이르렀다.”⁴²⁾는 여말 이래 왜구의 침략경로에 대한 상세한 서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덕무는 왜구의 침략사를 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다음에서도 보듯이 대일 경계심의 이면에 임란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덕무는 일본역사에 대해 기술한 「청령국지」(蜻蛉國志)에서 “수길(水吉)이 명나라를 범하려고 조선에 침구(侵寇)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수길(水吉)이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를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다고 조선 사람들이 배척하여 말하는 것은 착오”⁴³⁾라고 쓰고 있다. 이덕무는 풍신수길과 織田信長의 관계에 대한 조선사회의 오해를 규명하면서도 동시에 임란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덕무는 풍신수길이 건립한 대불사(大佛寺)에 대한 언급에서는 “절 곁에 둘레가 1백 20칸이고 높이가 5칸인 이총(耳塚)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에서 얻은 사람의 귀와 코를 묻은 곳”이라고 쓰고 있으며, 풍신씨(豐臣氏)의 멸망을 다룬 글에서는 “신종황제(神宗皇帝)가 동정(東征)한 일은,

41) 李德懋, 「編書雜稿四. 兵志備倭論」, 『靑莊館全書』 V, 민족문화추진회, 1980, 135쪽.

42) 李德懋, 「編書雜稿四. 兵志備倭論」, 『靑莊館全書』 V, 민족문화추진회, 1980, 132쪽.

43) 李德懋, 「蜻蛉國志一. 人物」, 『靑莊館全書』, 민족문화추진회, 1977, 87쪽. 이 문제에 대해서는 『增正交隣志』에도 “1588년에 평수길(平秀吉)이 원씨(源氏)를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하였다.”고 쓰고 있다. 金健瑞,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10쪽.

조선에 있어서는 재조의 은혜가 되고 명나라에 있어서는 천하에 군림하는 체모를 얻었으니, 아아! 홀륭하다.”⁴⁴⁾고 평하고 있듯이 임란의 기억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덕무의 임란 기억과 대일 경계심은 이처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700년대 말엽의 기록에서 보이는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1600년대 초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무사정권이 수립된 이후, 조선의 연안에는 과거와 같은 왜구의 침탈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의 통제력이 확립되고 1621년 7월에는 일본 전국에 해적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발령되어 그 활동거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1700년대 말엽은 해적금지령으로부터 170년이 경과하는 시점으로서 왜구는 물론 임란에 대한 증오심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란으로부터 200여 년, 해적금지령으로부터 170여 년에 걸친 평화로운 시대⁴⁵⁾가 무의미할 만큼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본인식은 1800년대에 들어서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4. 19세기 이후 조선시대의 대일 적대감

앞서 본 실학자 이덕무에게서 보이는 일본인식은 조선후기의 또 다른 실학자 한치윤(韓致胤, 1765~1814)의 『해동역사』(海東輿史)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동역사』 안에는 「교빙지」라는 주제 하에 ‘왜와 통하는 해로’ 항목이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교빙지’라는 외교적 수사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일본의 침략을 경계하는 의식이 도처에 기록되어 있다.

44) 李德懋, 「蜻蛉國志一. 人物」, 『靑莊館全書』, 민족문화추진회, 1977, 92~93쪽.

45) 이에 대해 이공익은 “지금 이와 같이 오래도록 태평하게 지내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가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로 신라와 고려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쓰고 있다. 李肯翊, 「邊圉典故. 倭國」, 『練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1967, 437쪽.

일례로 규슈지방에 이르는 해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만약 지금 쳐들어 온다면 반드시 이 길을 경유할 것”이라는 기술을 비롯하여, 동래의 다대포에서 추자도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전라도로 침범해 들어오는 익숙한 길”이며 “이것이 또 영남의 연해로 침입해 들어오는 지름길”이라고 쓰고 있다.⁴⁶⁾

한치윤은 양국을 잇는 해로는 왜적의 통로라는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결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악독한 마음을 돌리지 않고 사나운 심성으로 항상 침범하기를 도모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수로가 경유하는 길을 대충 서술하였으니, 바다를 방비하는 계책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고 마무리 지을 정도였다.

이러한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도 공유되고 있었다. 정약용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경세유표』(經世遺表)(1817년)에서 조선을 일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약용은 병선(兵船)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살피건대, 우리나라 전선(戰船)은 만력 임진란 이래 수영(水營) 한 곳에 거느린 배가 적어도 200여 척 이하는 되지 않으며 양서(兩西)에는 이보다 조금 적었는데 이것은 곧 비상시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차항(汊港)에 대어놓고, 모래 위에 끌어올려서 전혀 운용하지 않으면서 변고(變故)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 오직 전선(戰船)이라는 것은 제도가 투박하고 커서 운용하기에 불편한데, 혹 이순신의 남긴 법이 본디 이와 같이 투박한 까닭으로 가벼운 왜선이 부딪치면 부서졌던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에 깎아서 약하게 할 수 없다. …… 배 만드는 공장 가운데 수십 명을 항상 수군에 예속시켜서 누료(廩料)를 주고 수용하다가 급한 경보가 있을 경우 즉시 장조(裝造)하도록 한다면 또한 미치지 못할 염려가 없을 것이다.⁴⁷⁾

46) 韓致勳, 「交聘志八, 附 通倭海路」, 『海東釋史』 卷第四十, <http://www.minchu.or.kr>.

47) 丁若鏞, 『經世遺表』 I, 경인문화사, 1977, 180~181쪽. 정약용은 정조의 전선대책을 묻는

정약용에게 병선제도의 개혁은 수군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이순신의 남긴 법'을 거론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급한 경보'의 원인이 되는 일본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었던 셈이다.⁴⁸⁾ 한편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무남성(武南省). 광주(光州)란 무주(武州)이다. 신라 말부터 항상 큰 진(鎭)이었고, 고려 때에도 또한 그러했다. …… 생각건대, 신라·고려 때에 왜구가 우리 서해를 여러 번 침범했고, 만력 임진년과 정유년 난리에는, 다만 충무공 이순신의 힘을 입어서, 왜적이 울두홍(鬪斗洪)을 넘지 못했다. 만약 그때에 왜적이 이곳을 넘었다더라면 나주 열두 섬이 맨 먼저 뱀과 돼지 같은 놈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여러 섬에 성 하나, 보(堡) 하나 없으니 우리나라 서남해의 방어는 허술하다 할 수 있다. 바빠 한 현을 설치해서 그 침입을 막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 황서성(潢西省). 생각건대, 하동은 진수(滌水) 동쪽에 있어, 서쪽으로 섬진강만 건너면 곧 광양(光陽)에 닿아 전라도에 통한다. 여기도 관방할 곳이니 곤양을 합병해서 한 군으로 함이 마땅하다. 곤양 남쪽, 남해 어구에 노량보(露梁堡)가 있는데 여기가 이순신이 왜적을 막던 곳이다. 곤양 남쪽 두어 마을을 노량에다 예속시켜서 그 힘을 굳세게 함도 또한 마땅한 바이다.⁴⁹⁾

정약용의 행정구역 개편구상도 결국에는 병선제도 개혁과 마찬가지로 입란

전교(1796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천하만국에 모두 水戰이 있는데, 별도로 큰 배를 건조해서 전선이라 부르면서 진흙과 모래에 올려놓고 오랜 세월 동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짓은 진실로 고금 서적에도 보지 못한 바이다. …… 당초 전선을 설비한 것은 반드시 왜구가 있었던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침저녁으로 적변(賊變)에 대비해서 적이 눈앞에 있는 듯했습니다. 까닭에 그 법제를 엄중하게 해서 목적하는 곳에 대어놓고, 촌보(寸步)도 감히 이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도적 경계는 미리 나타나는 조짐과 먼저 들리는 소문이 없지 않았습다. …… 비록 임진년 사변으로 말하더라도 온 나라가 걱정하기 두어 해를 지난 다음에 임진란이 일어났으니, 걱정 없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丁若鏞, 『經世遺表』Ⅲ, 경인문화사, 1977, 382~388쪽.

48) 정약용은 이순신의 귀도명(鬼刀銘)에 대해 쓰면서도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丁若鏞, 「李忠武公鬼刀銘」, 『茶山詩文集』 제12권, <http://www.minchu.or.kr>.

49) 丁若鏞, 『經世遺表』Ⅰ, 경인문화사, 1977, 239, 256, 258쪽.

기억과 상호연동되는 일본 대비책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⁰⁾ 이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정약용도 실학자 이익이나 이덕무·한치윤과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을 망각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실학자들은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화이론적 대일 이적관에서는 탈피하고 있는 반면에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임란 기억과 연동되는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은 오히려 선명하게 의식된 면도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 후기의 이러한 일본인식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1860년에 임란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담은 최제우의 「안심가」가 작사되기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인식의 구도는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예조참의 김홍집(金弘集)이 주일 청국 참찬관 황준헌(黃遵憲)으로부터 입수해서 들여온 『조선책략』(朝鮮策略)을 둘러싼 대립에서도 드러난다.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 책략, 특히 '결일본'에 대해 조선사회에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론은 '결일본' 비판론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풍신수길이가 명목없는 전쟁을 일으킨 뒤로 우리 변경을 뒤흔들고, 우리 성곽을 짓몽개고, 우리 인민을 독해(毒害)하였는데, 명나라 군사가 공격하여 지켜 줌으로써 비로소 물러갔고, 근년에는 일본이 태도를 변하여 서쪽으로부터 나타나서 새매나 독수리처럼 노려보고 있으니, 더욱 그 의중을 헤아릴 수 없다. … 그들과 친밀해지는 것은 문을 열고 도적을 맞아들이는 것과 무엇이

50) 정약용은 일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日本今無憂也' 및 '日本之無可憂') 주장을 펼치고 있다. 丁若鏞, 「日本論一」·「日本論二」, 『茶山詩文集』 제12권, <http://www.minchu.or.kr>. 丁若鏞, 「對策」, 『茶山詩文集』 제8권, <http://www.minchu.or.kr>. 이런 정약용의 대일 '無憂'·'無可憂'론은 일본의 객관적 정세변화를 감안한 시세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대일 인식의 변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일례로 정약용은 정조의 지리학 질문(1789년 윤5월)에 대한 답변 가운데 "울릉도와 손죽도(損竹島) 등을 빈 섬으로 방치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 수로가 일본과 가까이 인접해 있으므로 만일 교활한 왜인들이 몰래 와서 울릉도를 먼저 점거해 버린다면 이는 국가의 큰 걱정거리"라고 답함으로써 불식되지 않는 대일 경계심을 피력하고 있다. 丁若鏞, 「對策」, 『茶山詩文集』 제8권, <http://www.minchu.or.kr>.

다르겠는가?⁵¹⁾

풍신수길의 일으킨 '명목없는 전쟁'인 임란의 기억은 여전히 강렬하게 작동되고 있었던 증거이며, 이 때문에 '결일본'은 '문을 열고 도적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책략」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이만손(李晩孫)의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에도 대일 비판의 기저에는 역시 임란의 기억이 작동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포왜란의 지난 일이 어제 같고 임진왜란의 숙원이 가시지 않았아온데, 그들을 이미 우리 관문의 좁은 목과 땅의 험하고 평탄함을 잘 알고 수록요충을 점령하였나이다. 그들은 본래 우리 종족이 아니므로 그 마음 또한 반드시 다를 것이옵나이다.⁵²⁾

한편 「조선책략」을 둘러싸고 상소가 빗발치던 1882년 5월 충청도 유생 백낙관(白樂寬)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왜놈은 임진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돌아간 뒤에 원망을 품어 계속해서 칼을 갈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 선조(宣祖) 중년에 또 대규모로 침입해 들어올 징조가 있었으므로 이이와 조헌 등은 다 같이 예비 대책을 취할 것을 진술하였으나 조정에서 쓰지 않는 까닭으로 임진년에 와서 풍신수길의 백만이나 되는 무리로 바다를 뒤엎으면서 몰려와 우리의 궁실을 불살랐고 능침을 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 일본과 우리나라는 백대의 원수로 처음부터 결속할 수가 없습니다.⁵³⁾

51) 黃遵憲, 「私擬 朝鮮策略」, 黃遵憲 原著·趙一文 譯註, 『朝鮮策略』, 建國大學校出版部, 1977, 15쪽.

52) 黃遵憲, 「私擬 朝鮮策略」, 黃遵憲 原著·趙一文 譯註, 『朝鮮策略』, 建國大學校出版部, 1977, 97쪽.

53) 『高宗實錄』 19卷, 19年 5月 4日(己丑). 백낙관은 1879년 12월의 「斥和疏」에서도 일본은 임란 이래 '百世讐'라며 일본의 침략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金祥起, 「南塘學派의 형성과 衛正斥邪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6. 31쪽.

「조선책략」을 둘러싼 이상과 같은 당시의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임란의 기억과 대일 '원수'론은 연동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이러한 적대감의 저변에 대일 경계심이 수반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이처럼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린 적대적 일본인식은 1881년 일본에 파견됐던 조사시찰단(朝土視察團, 일명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이현영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영은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와의 문답에서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진척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만약 수백 년 전의 일을 미루어 생각한다면 또한 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직도 따르고 믿지 않아서 급하게 개화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⁵⁴⁾

여기서도 보듯이 당시 조선사회의 일반적인 대일 정서는 깊은 '의심'이었고, 이러한 정서가 '수백 년 전의 일'이었던 임진왜란의 기억에 기반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⁵⁵⁾ 이처럼 대일 적대감을 야기하고 있었던 임란의 기억은 임란 3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든 변함없이 있었다. 189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사회에서 임란이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자명해 진다. 1892년 고종은 대신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하교를 내리고 있다.

선조(宣祖)께서는 옛날 임진왜란을 당하여 8년 동안 정치가 혼란되어 나라의 운명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처했으나 뛰어난 무예로 나라 안의 외적을 깨끗이 숙청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내어 우리에게 억만 년 무궁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니, …… 옛 선대 임금을 돌이켜 그리는 나의 마음은 더욱 다른 해보다

54) 이현영, 「日槎集略」, 『海行摠載』, 민족문화추진회, 1977, 155쪽. 이현영과 같은 조사시찰단원이었던 어윤중(魚允中, 유길준·윤치호의 수행)도 외무경을 역임했던 副島種臣로부터 “조선인들이 지금도 임진란을 遺恨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金泰俊, 「日本에서의 李忠武公의 名聲」, 『明知語文學』 제10호, 명지어문학회, 1978, 69쪽.

55) 임란 이후 조선 말기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1629년에 있었던 단 한 차례의 대마도 사절 상경을 제외하고는 일본인의 상경이 일체 허락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적대적 대일 경계심 때문이라 할 것이다. 孫承喆,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國學資料院, 1999, 35쪽.

곱질 더 간절하다.⁵⁶⁾

고종은 구한말의 혼미한 정국에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던 임진왜란을 화두로 꺼내고 있으며, 이를 평정하고 위난에 처한 조선을 다시 살려낸 선조에 대한 '간절'한 추념을 강조하고 있다. 고종이 간절하게 '그리는' 군주상은 선조가 지냈던 임란 극복의 영도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이 선조 대왕(宣祖大王)에게 존호(尊號)를 추상하는 경사를 기념하는 사령(赦令)만 포 석상에서 밝힌 임란에 대한 기억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명나라의 구원병이 평양성에서 적의 예봉을 꺾었을 뿐 아니라, 종사의 음덕으로 우리 수군이 한도(閑島)에서 남은 왜적을 소탕하였으니, 8년 동안 옮겨 다니시며 온갖 고초를 겪으시던 끝에 왜란이 종결되어 다시 평화로이 지내시게 되었다. …… 지금 왜란 후 다섯 번째 되는 임진년을 맞이하였다. 선왕을 추모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기만 하니 300년이 결코 먼 세월이 아니로다.⁵⁷⁾

여기서도 보듯이 고종은 평양성 탈환과 이순신의 한산대첩에 대한 선명한 임란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300년이 '결코 먼 세월'이 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의 대신들도 고종의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 고종과 마찬가지로 조정의 대신들도 300년 전의 임란을 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으며, 선조에게 존호를 추상해야 하는 이유도 임란 극복의 '큰 업적'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⁵⁸⁾

1876년 강화도수호조약 이후의 위정척사론을 비롯한 1880년대 이래의 일본 배척운동의 근거에는 한결같이 임란의 기억과 연동되는 적대적 대일인

56) 『高宗實錄』 29卷, 29年 1月 29日(己丑).

57) 『高宗實錄』 29卷, 29年 5月 2日(己未).

58) 『高宗實錄』 29卷, 29年 2月 17日(丙午).

식이 작동되고 있었고,⁵⁹⁾ 최익현이 을사보호조약 직후인 1906년에 의거를 촉구하는 격문에서 “이적(夷狄)의 화가 어느 나라엔들 없었을까마는 그 어느 것이 오늘날의 왜놈과 같겠는가? …… 저 도적 일본은 실로 우리 백세(百世)의 원수이다. 임진년의 흉사에 이릉(二陵)의 화는 말할 수 없고, 병자년의 수호조약은 한갓 외이(外夷)가 우리를 엿보는 것을 인도했을 뿐이다”⁶⁰⁾며 강렬한 대일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도 이러한 대일인식이 투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일 인식구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주목할 자료는 한일 합방을 주도한 일진회(一進會) 회장 이용구(李容九)의 기록이다. 공교롭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구도 일치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한합방성명서(日韓合邦聲明書)」(1909.12.4)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고려가 원나라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고 그 변경 백성들을 살육하였을 때에 변경 백성들이 화가 나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사사로이 전선을 정비하여

59) 개항 이후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아래 연구자들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본의 침략행위, 특히 왜구의 침입과 임진왜란” 혹은 “그 기저에는 삼포왜란이나 임진왜란이라는 대일관계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고 포괄적인 영향을 적시하고 있다. 배항섭, 「개항기(1876-1894) 민중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계간27호, 역사비평사, 1994, 218~219쪽. 姜大德, 「開港前後 華西學派의 對外認識-1860~1880년대의 尊攘衛斥論과 斥攘斥倭論 分析에 의한 접근-」, 『韓日關係史研究』 5, 한일관계사학회, 1996, 130~131쪽. 특히 배항섭은 부정적인 정서의 실체에 대해 “적대감이라기보다는 …… 왜에 대한 전통적인 비하 등의 분위기에 따라 경멸과 멸시감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배항섭, 「개항기(1876~1894) 민중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계간27호, 역사비평사, 1994, 220쪽.

60) 崔益鉉, 「倡義檄文」(1906.윤4.13), 『勉菴集』 II, 민족문화추진회, 1978, 231~232쪽. 최익현은 이어지는 격문에서도 “중세에는 이릉(二陵)의 치욕을 겪었는데도 오히려 꼭 갚아야 할 원수를 참고 기미(羈縻)로 대우해 주었으니 ……”라고 쓰고 있다. 崔益鉉, 「再檄文」, 『勉菴集』 II, 민족문화추진회, 1978, 235~236쪽. 한편 최익현은 앞의 「倡義檄文」보다 앞선 창 의 상소(1906.윤4.11)에서도 “왜놈들은 어차피 마음과 행실이 짐승 같은 오랑캐이니 실로 人道로써 책망할 바도 못 되지만, …… 신도 마땅히 달게 죽음을 받아 사나운 귀신이 되어 원수인 오랑캐를 쓸어 없앨 것이며 맹세코 놈들과 더불어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 않을 것”이라고 격렬한 반일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崔益鉉, 「倡義討賊疏」(1906.윤4.11), 『勉菴集』 I, 민족문화추진회, 1977, 236~237쪽.

가지고 중국 연해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도 또한 해마다 그 여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왜구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전쟁 이후부터입니다.⁶¹⁾

한일합방 직전의 시점에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임진전쟁 이후부터'라는 인식이 친일매국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구조차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그만큼 임란의 기억이 조선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도 보듯이 19세기 후반은 물론이고 20세기 초두에 들어서도 무려 300년 전의 과거사인 임란을 망각하기는커녕 시대적 상황에 조용하여 거꾸로 과거사를 선명하게 기억해 내면서 임란 기억을 매개로 한 대일 적대감이 반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임란은 그만큼 조선사회의 일본인식에 다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이 조선조정에서도 대일 적대감과 연동되는 임란 기억에 대해서는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1799년(정조 23)에 편찬된 사훈고(司勳旂)에는 조선왕조 개국공신에서부터 총 22차례에 걸쳐 책훈된 역대 공신들에 대한 상세 기록이 실려 있다. 정조는 이들 공신 중에서도 특히 '드러난 이들'로 相臣으로는 총 8명 중에 양란에서 활약한 유성룡·정철·이항복 등 5명을 들고 있으며, 將臣으로는 총 12명 중에 이순신·권율 등 5명을, 忠節로는 총 6명 중에 김시민 등 3명을 꼽고 있다.⁶²⁾ 임란기 인물이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 400년을 대표하는 상신·장신·충절 중에 임란 공신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주목할 만하며, 그만큼 조선시대의 지배계급은 임란 기억에 대해서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⁶³⁾

61) 『純宗實錄』 3卷, 2年 12月 4日(陽曆).

62) 『羣書標記 4. 御定 4』, 『弘齋全書』 제182권, <http://www.minchu.or.kr> ; 『雜著 3. 司勳旂 義例』, 『弘齋全書』 제56권, <http://www.minchu.or.kr>.

63) 임란에 대한 각별한 의미 부여는 1871년에 단행된 대원군의 서원철폐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650개 서원 가운데서 존치가 결정된 곳은 사표가 되는 47개소였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사회의 일본인식, 특히 적대적 대일인식은 일정한 구도를 지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대일 멸시감으로서의 화이론적 이적관과는 달리 임란을 경과한 17세기 이후에는 대일 '원수'론에 입각한 적대감이 두드러지게 발견되며, 이런 대일 적대감은 임란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식적으로 보면 '임란의 기억=대일 적대감=원수'라는 인식구도는 임란 체험자에게는 물론이고 그 후대의 인물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란을 기점으로 형성된 적대적 대일인식은 17세기에서 20세기 초반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망각되지 않는 임란의 기억과 뿌리깊은 대일 적대감은 불가분의 연동관계에 있었으며, 임란 기억으로 인해 형성된 적대감은 임란으로부터 300여 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조차 사라지지 않고 강고하게 온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적대적인 대일인식의 형성과정에서 임란이 끼친 영향은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주목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2. 4. 5,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임진왜란, 임란 기억,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불구대천지원수, 대일 적대감, 적대적 대일인식, 반일감정, 文祿慶長の 役

다. 그 가운데 39곳이 조선시대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임란 관련 서원은 30%에 가까운 11곳에 이른다. 『高宗實錄』 8卷, 8年 3月 18日(戊申) 및 3月 20日(庚戌). 기존 서원에 대해서는 李肯翊, 『練藜室記述』 IX, 민족문화추진회, 1967, 270~319쪽.

<ABSTRACT>

A study on Koreans' hostile view of Japan during the
Joseon Period

- With the focus on the period between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

Lee, Kyu-bae

Various studies have been made of Koreans' view of Japan during the Joseon Period. However, the number of such studies pales in comparison to the number of studies of Japanese people's view of Korea; and, notably, the number of studies focusing on Koreans' hostile view of Japan is even smaller. Korean hostility towards Japan has long been regarded as a natural and 'objective' fact, but few studies examining the concrete background to such hostility exist.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reality of Korean hostility towards Japa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during the Joseon Period, which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There was some consistency in Koreans' view of Japa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ir hostility, during the Joseon Period. From the 17th century on, the Koreans regarded the Japanese as enemy, contrasting somewhat with their view of Japan in the preceding period, which was characterized by feelings of contempt towards such 'barbarians'. The newly formed hostility towards Japan was closely linked to the collective memory of Japanese invas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his may be described in the following terms: "The memory of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late 16th century" = "Hostility toward Japan" = "The collective view of Japan as an enemy." Such a mindset was evident even among later generations of Koreans. The hostility felt towards Japan, which formed in the wake of the seven-year war in the late 16th century, persisted in the minds of most Koreans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when Japan annexed Korea as a colony.

At that point, the scarcely forgettable memory of Japan's invasion in the 16th century had been inseparably linked to Koreans' deep-seated hostility towards the Japanese for more than three centuries. As Choe Ik-hyeon(崔益鉉), who led a voluntary militia against Japanese colonists in the late 19th century, put it resolutely, Koreans regarded the Japanese as "enemy barbarians" and as people with whom Koreans "could not bear to live under the same sky." In this sense, the impact which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late 16th century had on the Korean people throughout the rest of the Joseon period can be said to have been decisive.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late 16th century (The "Bunroku Keicho attack" as termed by the Japanese), Koreans' view of Japan in the Joseon Period, an irreconcilable enemy, Korean hostility towards Japan, anti-Japanese sentiment